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하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 예금 거래 실적 3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30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02-261-0800 02-261-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6월 1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6월은 환경의 달이다. 공해와 폐수로 찌든 지구촌은 너도나도 '녹색운동'이 한창이다. 초기경전(아함경)에는 불교가 얼마나 환경상상과 맥이 닿아있는지 잘 알겠다. 풀 한 포기 돌음이 하나부터 땅, 물, 불, 바람 등 모든 생명과 자연현상에 대해 귀하게 여기며 공생을 강조한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경전과 조사어록을 살펴본다. (관필주 주)

“하고 깨끗한 불국토를 원하거나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맑고 깨끗함에 따라 불국토는 깨끗해 지느니라” (유미경)

“대왕이시여, 범행을 행하는 왕은 불을 지르지 말며, 파괴하지 말며, 불을 대지말지니, 이것이 무릇 세간을 보호하는 것이옵니다. 일체가 착하지 못한 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대실 처니지니 소설경>

깊은 산속 불법(佛法)은 바위가 그대 큰 바위 작은 바위 저마다 동글다 거짓 부처님을 만드느라고 공언해 버릴까 어 법신(法身) 상했네 <백운스님 금강산 내 석불상>

따지고 보면 육도(六道) 중생이 모두 내 아버지요 어머니다. 그러므로 산 속을 잡어먹는 것은 곧 내 부모 형제를 죽이고 내 옛날을 먹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법민경)

세상에 있는 고기치고 생명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고기 먹는 것을 죄라고 말하며, 자비의 종자를 굵기 때문에 먹는 것을 허락치 않는다. (법가경)

“노승이 30년간 참선하기 이전에는 산은 참산이요 불은 녹수였다. 그러던것이 그 뒤에 어진스님을 만나 깨침에 들어서고보니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을 불이 아니더니, 마침내 진실을 깨치고보니 산은 의연로 산이요 불은 의연로 불이더라” (청원 유선사 법어)

땅의 세계가 즐거움을 수반하고 즐거움을 드러내고 괴로움을 드러내지 않으며 즐거운 까닭으로 못살음이 땅의 세계에 탐착한다. (상운이합경)

본래 산에 사는 사람이라 산중 이야기를 즐겨 나눈다. 5월에 술바람 팔고 싶으나 그대를 갈 모르니까 그대 무렵네 <선종고려>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기를 끝없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라.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듯이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소를 빼앗아서도 안된다.” (법규경 회향품)

관련기사 3·6면

“황룡사 복원하자” 여론 확산

경주시 조감도 계획서등 정부에 제출 조계종 폐사지 복원등 전사법 개정 추진

우리나라 최대의 사찰이었던 황룡사(경북 경주시 구황동, 사적 제6호)를 복원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황룡사는 569년(신라 진흥왕

31년) 17년의 공사기간을 들여 완공된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사찰로, 황룡사 9층목탑과 함께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꼽힌다. 황룡사가 위치한 경주시는 이미 황룡사 복원계획을 지난해 확정하고 고건축전문가 이형재씨(동남건설사무소장)에

의뢰해 황룡사 복원 조감도를 마련했으며, 문화재관리국에도 황룡사 복원정비 기본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용권 경주시 문화과장은 아직 황룡사 복원계획을 발할 단계는 아니면서도 “황룡사 9층탑의 경우 현재의 기술로는 완전복원이 어려운만큼 탑내부는 콘크리트, 외부는 목재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내부논의가 있었다”고 밝혀 복원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지난 5월26일 KBS가 일요일 특집에 방영한 ‘영삼복원-황룡사’는 복원여론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했다. 컴퓨터그래픽 기법을 활용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불국사 8대 크기(2만15천



“호국영령들이여 극락왕생 하소서”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중)회원 1백여명은 지난 6일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묘지 무명용사탑에서 호국영령들의 넋을 추모하여 금강경을 독송했다. <고영배 기자>

고속철 경주우회 최종 확정

문화재 피해 최소화 교계·학계등 환영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이 경주도심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최종 확정됐다. 나중배 부총리는 지난 8일 정부공식발표를 통해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은 경주를 경유하되 건천-화천으로 도심을 우회하는 문체부안을 바탕으로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으로 결정됐으며 곧 항공추진과 지표조사 등 설계와 시공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김영수 문화체육부장관 주경석 건설교통부장관 구본영 청와대경제수석 박세일 사회복지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부고속철도의 경주노선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종 노선을 확정짓지는 못했지만 건교부가 제안한 도심통과 노선과 대구-부산 직진노선은 논의과정에서 제외했다.

‘미륵반가상’ 올림픽행사 美나들이 위험대비 4백억원 보험가입

본지가 우리 민족정신과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대상용 미륵반가상(국보 제83호) 석고모형 보급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이 공동미륵반가상이 해외에 출품돼 화제가 되고있다. 공동미륵반가상은 애플라타 올림픽 문화예술행사의 하인인 미국 애플라타의 ‘하이 유자업 오브 아트’에서 열리는 ‘링스전(Rings)에 출품돼 오는 7월4일부터 9월29일까지 전시된다. 미국측은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불상을 내걸 때부터 다시 들여올 때까지 있을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 4백억원의 보험에 가입해 최근 크게 높아진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

△혜도스님 △부친수회장

△본사 김광삼사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4일 개교50주년 맞은 광동중학교 김교장에게 대상용 미륵반가상을 전달했다.

대상용 반가상 중·고교 전달

동참해주신 분

△혜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부산 광명고 남도여중 남중 동산여중 남고 남여상고 체육고 부산해사고 신천중 영도여고 영도여중 영도여상 영도중 해동중 부산공예고(15구좌) △상현 기원사 스님: 의정부여고 덕중(2구좌) △성의 웅문사스님: (1구좌) △부친수 부산불교신도회장: (5구좌) △이경순: 부산 담양여중(1구좌) △김남중 지주암창경주: 만동·서부초중 안동여고(23구좌) (1996년 6월5일 현재 총 278구좌 접수)

△보급기간: 1996년 4월부터 12월31일까지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누구나 가능

△구좌단위로 참여한다(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지역 학교·출신학교·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 온라인구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감은사(東山) 유물 화보 16면

환경의 날 특집 3면

월간 '동쪽나라' 재정년 휴간 12면

봉은사 '고층건물 몸살' 심각 15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초고속 펜티엄할주로가 열렸다!

EDO-DRAM

가적은 경제적으로 성능은 획기적으로 - 멀티미디어PC 최적의 성능을 위한 삼성 EDO-DRAM

- 1 가격 부담이 없다. EDO-DRAM은 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면서도 범용 DRAM과 가격 차이가 없어서 부담없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 2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다. EDO-DRAM은 Data Access Time이 Fast Page DRAM 대비 60%의 성능향상을 보이므로 CPU와 Memory 사이의 속도차이에 의한 병목현상을 개선합니다.
- 3 손쉽게 확장된다. EDO-DRAM 모듈은 펜티엄 PC에서 Fast Page DRAM 모듈과 같은 소켓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구입이 쉽습니다.
- 4 캐시 메모리와 함께 최상의 성능을 발휘한다. EDO-DRAM은 Synchronous Cache와 같이 사용하면 멀티미디어 PC 환경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Org	부호명	Speed (ns)	Bank 구성	비고
4MB	1M x 32 KMM532120AN-6	60	30	Single
8MB	3M x 32 KMM53220AAW-6	60	30	Double
16MB	6M x 32 KMM532210AKU-6	60	30	Single
32MB	12M x 32 KMM53210AK-6	60	30	Double

Org	부호명	Speed (ns)	Bank 구성	비고
32K x 32	KM732V589K-15	15	15	Multibank support
64K x 16	KM716V689K-15	15	15	Multibank support

Smart & Soft
SAMSUNG
 삼성전자

반도체 판매본부 ● 메모리사업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71-64-11 (세브란스빌딩 16층) TEL: 259-4704-6 FAX: 259-2478
 ● 국제사업부 / 서울특별시 (주) : 597-8121 / 삼성출판 (주) : 718-0045 / 삼성정보 (주) : 3272-9300 / 한양정보 (주) : 539-4123 / (주) 삼성테크 : 3458-9000 / 선인교역 (주) : 702-1257-6 / 무진전자 (주) : 763-4890-2 / 김원전자 (주) : 784-9966-7